

COMMENTARY – ROMANS – Barth

Barth, Karl. *Der Romerbrief (Commentary on Romans)*. Munchen: Deutschland, 1922.
Koran Edition. Tans. Nam Hong Cho. Seoul: Korea 1997

Karl Barth, *Der Romerbrief (Commentary on Romans)*, Munchen, Deutschland, 1922. Koran Edition. Tans. Nam Hong Cho (Seoul: Korea 1997),

롬 12: 1-2

하나님의 자비심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 “이런”이 실천의 이론이다. 하나님의 자비심에 관하여는 은혜, 부활, 용서, 영 선택....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마주 다가왔다는 이유에서 그 긍휼은 우리에게 “권고”로 되어야만 한다.¹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계란 우리가 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게 해 준다. 우리는 삶과 의지와 행동의 질문 앞에서 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 인간적 차안성의 지양, 마주 서 있는 모든 것, 다른 것에 대한 철저한 공격 이것이 긍휼이 갖고 있는 피안성의 의미요, 하나님 자유의 의미이다.²

여기서 “세계” (세상)는 이 세계, 이 “세대” 곧 시간과 사물과 인간의 세계인 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즉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진 것으로서 유일한 세계이니 표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계요, 우리 “몸”과 뿔레야 뿔 수 없고 어떤 경계선에 의해 갈라질 수 없을 정도로 하나인 그러한 세계이다. 빛을 향한 보편적 열망, 풍요와 생식과 생식되어진 것, 즉 피조물에 대한 열망 ----- 사랑하는 나, 쾌락과 소유와 성공과 지식과 권력과 권리에 대한 열망, 추구할만 하고 도달될 만한 표상된 완전성에 대한 열망, 그리고 업적에 대한 열망 가운데 그러한 것이 존속한다. 세상의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 세상 끝까지 항상 지니고 간다. 이세상의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자기 고유의 특색, 자기 고유의 의지, 자기 고유의 힘, 자기 고유의 권리가 함몰되는 곳에, 인간이 제물로 바쳐진자로 있는 곳에, 그리고 이 이상 아무것도 아닌 곳, 바로 거기에서 인간은 윤리적으로 행동한다. 이유는 거기에 세상의 끝이 있기 때문이고, 거기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대단히 명확하게 이 세상의 형태에 우리 자신을 내 맡기지 않고 그것의 변화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때문이다.³

여러분을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지체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지체를 갖고서 복종하고 그 지체를 우리에게 행하여진 신적인 항변의 “재량에 맡기는 것”외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남겨놓지 않는다 (6:13-19). 두말할 것 없이 바로 “몸”, 지체들이 요구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홀로 알고

¹ Karl Barth, *Der Romerbrief (Commentary on Romans)*, Munchen, Deutschland, 1922. Koran Edition. Tans. Nam Hong Cho (Seoul: Korea 1997), 651-655

² Karl Barth, *Der Romerbrief (Commentary on Romans)*, Munchen, Deutschland, 1922. Koran Edition. Tans. Nam Hong Cho (Seoul: Korea 1997), 656.

³ Karl Barth, *Der Romerbrief (Commentary on Romans)*, Munchen, Deutschland, 1922. Koran Edition. Tans. Nam Hong Cho (Seoul: Korea 1997), 665-668.

있는 인간 자체, 명시적이고 역사적인 인간이 바로 몸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의 “공홀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을 통한 전적인 의문과 압류가 인간에게 부딪치게 된다. 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리라: 어떤 것을 거룩하다 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골라 준비한 그것을 그에게 가져다 드림을 의미한다. 제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표시된다. 하나님의 공홀에 근거하여 인간에게 행해진 권고는 그의 몸, 즉 인간의 감상적-명시적-역사적인 존재를 하나의 “제물”로서 그의 자유 재량에 맡긴다는 뜻에서 말하고 있다. 제물이라고 함은 인간의 내맡김을 의미하니 곧 신성을 위하여 인간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조건없는 내맡김이다. 그 제물은 인간이 거듭거듭 새롭게 되어야 하고, 따라서 결코 어느 때 한번 종결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복귀니, 곧 하나님의 공홀과 자유로의 복귀를 통하여 바쳐져야 할 제물이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바치는 자가 자기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마치 하나님의 어떤 기관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집행되는 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경외를 위한 시위이다. ⁵

이 세상의 모습을 쫓는 데에 따르지 말고 앞으로 오는 변형을 쫓으십시오: ⁶

⁴ Karl Barth, *Der Romerbrief* (Commentary on *Romans*, Munchen, Deutschland, 1922. Koran Edition. Tans. Nam Hong Cho (Seoul: Korea 1997), 659-660.

⁵ Karl Barth, *Der Romerbrief* (Commentary on *Romans*, Munchen, Deutschland, 1922. Koran Edition. Tans. Nam Hong Cho (Seoul: Korea 1997), 661-662.

⁶ Karl Barth, *Der Romerbrief* (Commentary on *Romans*, Munchen, Deutschland, 1922. Koran Edition. Tans. Nam Hong Cho (Seoul: Korea 1997), 665-